

## 국제 경쟁에 이기려면 품질고급화와 생산성 향상만이 살길

윤 상 기 축산연구소 소장



**벌** 씨 병솔년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지난 일년간 우리 양계업계는 실로 많은 일 들을 겪어 왔습니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를 비롯한 각종 질병과의 싸움,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계란과 닭고기의 가격등락, 호우와 연이은 혹서로 인한 폐사발생, 한미간 FTA 협상을 둘러싼 각종 우려 등 실로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은 한해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계인들은 전통적으로 강한 결속력으로 서로 힘을 합하여 슬기롭게 여러 난관들을 잘 극복해 나갔다고 봅니다.

최근 각종 보도를 통하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 무역에서는 관세가 철폐되는 추세에 있으며, 지난번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데 이어 조만간 한-미간 무역협정이 체결될 예정이고, 이어 중국 등과도 협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국제간 교역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치열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뿐이며 이러한 경쟁은 비단 국가간 경쟁뿐 아니

“

귀중한 양계산물이 점차 거세지는 국내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란의 경우 브랜드계란 생산을 지역단위로 특성화된 통일된 브랜드 생산 체계 구축한다든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기능성 계란 생산과 신선하고 보다 위생적인 계란생산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닭고기는 현재와 같이 계열주최가 중심이 되어 각 업체별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되 생산에서부터 매장 판매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유지하고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업체별 농가 지도 및 품질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라 국내 동일 업종 간 경쟁에도 엄격히 적용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양계산물은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됨으로서 일반 소비자들은 양계산물을 저가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계란과 닭고기의 영양가치는 얼마나 될까. 이들은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영양 덩어리로 우리국민들을 영양결핍에서 구해준 효자 품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계란의 경우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는 값싼 단백질 공급원인 동시에 필수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어린이의 성장 및 두뇌발달과 성인의 시력보호, 성 기능장애를 예방하는 등의 여러 효과가 있어 어린이는 물론 노인에 이르기까지 더 없이 좋은 완전식품이며, 닭고기 또한 근육섬유가 가늘고 연하며 단백질은 많은데 비해 지방과 칼로리가 적고 소화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임산부의 보양식이나 위가 약한 환자와 노인, 어린이들에게 널리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양계산물이 점차 거세지는 국내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품질이 한층 고급화된 위생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길밖에 없다고 보며, 그 방안으로는 계란의 경우 브랜드계란 생산을 현재의 소규모 형 개별농가 생산에서 지역단위(예:영남, 남부권, 호남 중부권 등)로 특성화된 통일된 브랜드 생산 체계 구축한다든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기능성 계란 생산과 신선하고 보다 위생적인 계란생산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닭고기는 현재와 같이 계열주최가 중심이 되어 각 업체별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되 생산에서부터 매장 판매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유지하고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업체별 농가 지도 및 품질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축산연구소에서도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농가소득을 더 높일 수 있고 양계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실용적인 연구를 더 많이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양계**